

Architectural Review

Domus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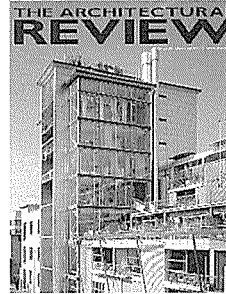
建築文化

新建築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11월호

집합주택을 이 번호의 특집기사로 실었다.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조직 내의 주거단지에



서부터 싱가포르의 친환경적 주거단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도시계획으로는 뉴욕 맨하탄 남서부 재개발 계획 현상안들을 소개하여 현 도시에 대한 건축가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뉴욕 맨하탄 남서쪽 재개발 계획 안 소개

캐나다 건축 센터(IFCCA)의 주최로 열린 이 지명 현상 설계는 각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들의 도시관을 개념적으로 펼치는 장이 되었다. 아이젠만의 허드슨 강에서부터 8번가에 이르는 사이트를 역사적인 공원으로 변형하는 안이 당선되었다. 서쪽 끝에는 2012년 올림픽에 대비한 스타디움이 자리잡게 된다. 도시조직의 주름으로 이름 붙여진 공원은 물결치는 경로를 만들어 낸다. 아이젠만은 전통적인 도시계획이 단일한 건물을 독립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도시계획은 연속적이고 고밀도의 도시 조직과 공원이 결합되는 방식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호텔, 상업시설등을 포함한 메가스트럭처를 계획하는 경향은 Reiser + Umemoto의 거대한 유리 피막 구조물에서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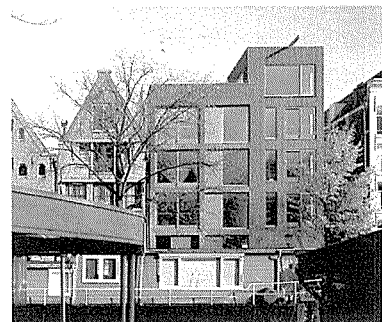
■ 집합주택 특집

▶ Gullichsen Vormala



Architects의 헬싱키 주거 단지 헬싱키 다운타운에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는 전통적인 유럽도시의 스케일과 다양성이 근대의 기술에 의해 어떻게 회복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주동은 8층 높이인데, 그것은 넓은 면적의 조경된 녹지를 가운데 두고 남쪽으로 60년대 개발된 오피스 건물과 마주보고 있다. 각 주동은 내부의 반공적인 정원으로 향하는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주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거주자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되었는데, 대가족을 위해서 여러 주동이 결합된 예도 있다. 각 층 슬라브 아래에 서비스 보이드를 두어 설비 등의 변화에 용이하도록 시공하였다.

▶ Mecanoo의 암스테르담 주거계획 2제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아파트먼트를 어떻게 역사적인 도시 조직 안에 삽입시키는가 이다. 오래

된 운하를 따라 17-18세기 벽돌조 건물들이 늘어선 단지에 들어서게 될 이 두 건물은 운하를 전면에 두고 인접하고 있다. 건물의 외장은 운하 쪽과 골목길쪽을 달리 처리하여, 운하에 면하는 면은 넓은 베이에 얇은 벽돌 프레임을 이루면서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반영하고 있으며, 골목길에 면하는 면과 건물의 후면은 나무판으로 마감되었다. 각각의 계획은 사이트, 콘텍스트, 프로그램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유사한 외장 마감이 두 건물을 연결하고 있다.

▶최근의 European 5 공모에서 수상한 Team Haut의 로테르담 Courtyard Housing은 중정을 가진 블록의 재개발에 있어서 혁신적이면서 생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세계 각국의 환경적, 도시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이는 예로 ▶Erik van Egeraat의 네델란드 Tilberg 주거 단지, ▶Kaufmann, Van der Meer & Partner의 취리히 도시주거, ▶Sy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Graz 주거 단지, ▶Koning Eizenberg의 산타모니카 Family Housing, ▶Bedmar & Shi의 싱가포르 주거단지, ▶Alford Hall Monaghan Morris Architects의 런던 Dalston 주거단지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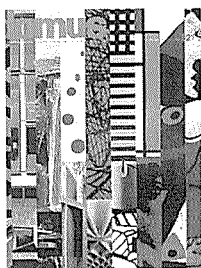
■ 기타

▶디자인 리뷰로서 마스터 내부에 모니터를 위한 전력과 통신케이블을 위한 배관을 포함하는 Nikolas Grimshaw & Partners의 내외부 사인 디자인 ▶Kenneth Frampton의 1999 UIA conference의 기초연설을 편집한 밀레니엄을 위한 7가지 요점을 실었다.

Domus

1999년 12월호

세기말, 밀레니엄 전환기를 맞아 Domus는 지난 과거를 정리하는 특집 대신 일반호와 마찬가지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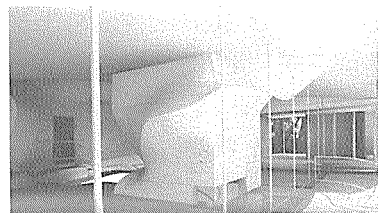


및 디자인계의 현안들을 차분하게 다루고 있다. 작품들로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는 개인 주택들이 소개되었고, 컴퓨터의 형태 형성, 전자 기술과 기계 기술의 차이 등 컴퓨터 문명에 대한 에세이가 다수 실려있다. 아울러 근대 초기의 이벤트 및 저서들을 소개함으로써 모더니즘이 아직까지도 “제2의 모더니즘”, “유동적 모더니즘” 등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프로젝트: 밀레니엄 전환기의 개인 주택들

문화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은 오늘날 건축가들에게 남은 유일한 실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소양을 지닌 건축주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주거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소개된 주택들은 근대 모더니즘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는 작품들로, 가능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다.

▶Preston Scott Cohen의 미국 뉴욕 Old Chatham Torus 주택 한때 건축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건축에 대한 문화적 영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건축 이외의 이미지 생산 분야에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형태들에 대응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형태 그 자체가 되어 버리는 건축물들도 나타나고 있다.

▶Shigeru Ban의 일본 Kanagawa현 Hadano 9개 정사각형 그리드 저택

Ban의 “universal floor” 시리즈 중 가장 돋보이는 이 작품은 간단한 구조의 변형을 통해 최대한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이다. Mies와 아울러 John Hejduk의 영향이 드러나는 이 주택은 3x3의 그리드 속에서 마치 퍼즐과 같이 움직이는 벽면들을 통해 시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외에 ▶John Pawson의 영국 런던 주택, ▶Sean Godsell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Kew 주택, ▶Daly Genik의 미국 캘리포니아 Santa Monica Slot Box 주택, ▶Adolf Krischanitz의 오스트리아 Steinaweg 아뜰리에 저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이벤트



GM사의 Futurama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1939년의 뉴욕 세계 박람회는 “오늘날의 도구로 내일의 세상을 개척한다”는 표어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산업 디자인 선구자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이 행사에 대해 그 시대적 상황과 준비 과정, 그리고 GM사의 Futurama 등 기업별 파빌리언에 대한 해설과 사진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제2의 모더니티”라는 제목 하에 소개된 Kenneth Frampton과 Günter Uhlig의 대담 내용, ▶ Ettore Sottsass Jr., Enzo Mari 등 저명 디자이너들의 작업 환경 사진, ▶ 컴퓨터 형태의 기원에 대한 에세이, ▶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Sony, Kodak, Apple, IBM사 등의 전략 및 상품 소개, ▶ 기계 문명과 전자/전기 문명의 차이에 대한 에세이, ▶ 영국 내에 위치한 James Sterling의 건축 작품들 위치와 사진, ▶ 핸드폰, TV, DV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분야의 신상품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다. ▶ 아울러 저서 소개에서는 Benedetto Croce의 〈Fundamental Theses of Aesthetics as the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s〉, Andr Breton의 〈초현실주의 선언〉, Le Corbusier의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등 근대 시기의 고전들이 다루어져 있다.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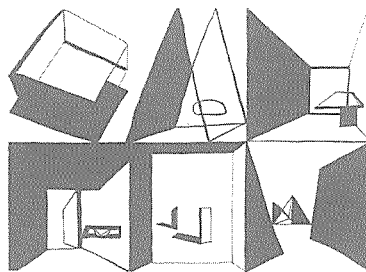
1999년 11월호

커버스토리로 건축 드로잉 작품전을 개최해온 미술관장 Max Protetch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를



다루고 있는 본 호에서는 근작으로 Zvi Hecker, Smith & Other Architects, Brian MacKay-Lyons의 새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및 실무 분야에서는 사무공간 공동 작업을 더욱 용의하게 할 인터넷의 새로운 언어형식, 해외 사업에서 성공하는 전략 등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 건축의 미술성



루이스 칸의 여행스케치

미술관장 Max Protetch은 건축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드로잉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인식한 사람이었다. 한 시대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건축은 지어지지 못하는 계획안들이라는 자각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Protetch는 Peter Eisenman, Michael Graves 등이 초기에 페이퍼 아키텍트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고 Aldo Rossi, Rem Koolhaas, Zaha Hadid,

Bernard Tschumi 등의 드로잉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Louis Kahn의 여행 스케치등 그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가들의 스케치 작품들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근작소개

▶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면들을 형성한 Zvi Hecker의 독일 Duisburg 유대인 문화회관, ▶ 개발업자에 의한 획일화된 주거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Smith & Other Architects의 미국 San Diego 도시형 주거 Merrimac Building, ▶ 목조 큐브 형태를 변형하여 해안가에 지은 Brian MacKay-Lyons의 Nova Scotia 주택들이 소개되어 있다.

■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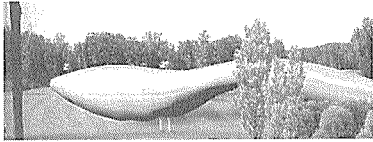
지난해 2월, 컴퓨터 산업계 거물들의 모임인 W3C는 당시까지 인터넷 언어 형식을 정의했던 HTML에 대한 대안으로 XML(Extensive Markup Language)을 소개한 바 있다. XML tag는 HTML tag에 비해 더 명확하여 파일 전송시 더욱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호환성도 뛰어나 인터넷을 통해 도면 자료를 주고 받는 작업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건축계의 해외 사업 전망

한때 제자리를 잡아갈 것처럼 보이던 설계사무소들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 러시아 권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1999년에는 세계 각지에서 해외 사업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건축주 선정에 신중하고 선도금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의 안전성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서유럽, 동유럽, 남미, 동아시아 등 지역별 상황과 대안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SOM의 사장으로 발탁된 전 General Electric사 부사장 Kenneth Brown이 이야기하는 국제 시장 공략법 등이 실려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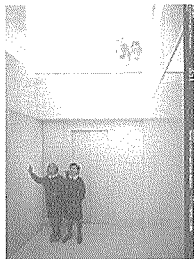
아디다스 본부 마스터플랜

▶모더니즘이 20세기 중반 건축과 조경에 미친 영향, ▶'기업 문화'를 재정의하는 아디다스 본부 마스터플랜(사진6), ▶기존 자연환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지어진 미국 샌디에고 Mesa대학 도서관, ▶뉴욕 시 랜드마크 건물들에 대한 부동산 회사들의 쟁탈전, ▶건조 지역에서 야간을 이용해 지붕에 물을 뿌려 주간 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재료 분야로는 세라믹 타일과 자연석이 다루어져 있다.

a+u

1999년 12월호

이번 호는 특집으로 마드리드에서 건설되었거나 건설된 공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마드리드 건축가들의 활동을 다루었다. 라파엘 모네오



의 시청사 건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을 목전에 두고 완성된 마드리드의 공공건축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 특집: 마드리드의 건축가와 공공 건축

▶마드리드의 공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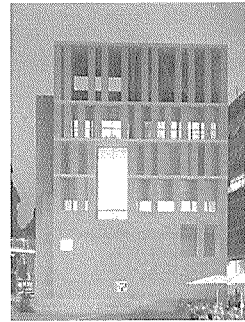
이번 특집은 마드리드에 지어진 공공건축물들을 통해 본 스페인 건축가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런던이나 베를린에서는 건축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붐은 조금은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열기를 띠고 있다. 똑같은 유럽에 속하면서도 비교적 변두리에 위치하는 스페인의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수도 마드리드도 예외가 아니나, 이곳이 런던이나 베를린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처럼 호황을 누리는 민간기업이나 이들의 후원을 얻은 정부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런던과 베를린의 프로젝트들은 국가의 영향력이 가해졌고, 국가의 선전기구로서의 건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드리드의 건축 붐은 더욱 지역적인 것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공건축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역사적 건축물들로 점유되어있는 국사가지로부터 교외로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도시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공 시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전반, 이들 대부분의 시설들이 현상설계에 붙여졌으며, 그 후 경제상황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어 2000년을 목전에 둔 현재에 대부분의 건축이 완성되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런던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나 베를린의 재개발 등에

비하여 스케일도 작으며 예산도 넉넉치 못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건축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건축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상설계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파엘 모네오와 같은 작가로부터 젊은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에 걸쳐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적은 예산과 여러 조건들에 대응하여 더욱 과격한 도전을 하는 그들의 작품은 오히려 런던이나 베를린에서 차례로 지어지는 건축물보다 더욱 건전하고 더욱 밀레니엄에 걸맞는 건축처럼 보여진다.

▶ 작품/ 에세이



라파엘 모네오의 무리시아시 신시청사



구아다라마 컬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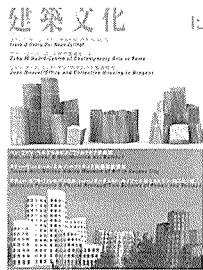
소개된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로는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의 무리시아(Murcia)시(市) 신(新)시청사, 까를로스 푸엔테(Carlos Puente)의 마드리드 묘지(Cemetery in Camarma de Esteruelas), 컬처 하우스, 구아다라마(Guadarrama) 컬처 센터, 마리아 프라일레(Mar a Fraile)와 하비에 레빌로(Javier Revillo)의 발데모로

(Valdemoro)스포츠센터, 페데리코 소리아노(Federico Soriano) & 돌로레스 팔라시오스(Dolores Palacios)의 유스칼두나 하우레지아(Euskalduna Jauregia) 회의·음악 홀 센터, 에두아르도 아로요(Eduardo Arroyo)의 간호학교, 오페라와 회의 센터, 안드레 페레 오르테가(Andrés Perea Ortega)의 펜카랄(Fuencarral) 구역의 공공도서관, 헤수스 아파리시오(Jesús Aparicio)의 산타 마르타 데 토르메스(Santa Marta de Tornes) 집합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라파엘 모네오에 대하여 루이스 페르난데즈 갈리아노의 「시청사의 컴포지션: 무르시아에서의 모네오」와 까를로스 퓨엔테에 대한 페르난도 에스펠라즈의 「기억의 창작」, 그리고 에두아르도 아로요 자신의 에세이 「9개 유목민의 모놀로그」가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1999년 12월호

20세기의 마지막호는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 장 누벨, 벤 발 버클, 스티븐 홀 등 최근의 잘 알려진 건축가들의 최신작품들로 꾸며졌다. 특별한 주제나 타이틀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90년대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들의 소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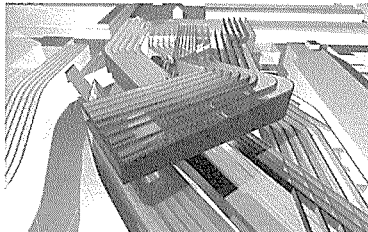


도 볼 수 있다.

■작품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의 뒤셀도르프 오피스 빌딩 부지는 뒤셀도르프의 라인강의 워터프론트의 동단에 위치하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th Rhine Westphalia)지방의 정부청사단지 근처에 위치한다. 이곳은 최근 창고 건물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던 지역이나 요즈음에는 도심부의 공공지역으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리의 오피스 빌딩들은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실내공간에서의 조방과 일조의 고른 조건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3개의 동은 각각 다른 마감재로 이루어져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였다. 각 동은 여러 개의 매스가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에서는 오픈 플랜과 방으로 구획된 평면 계획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하 하디드(Zaha M. Hadid)의 로마 현대미술센터



로마 현대미술센터는 기존의 육군병사(陸軍兵舎)의 형태를 그대로 남긴다는 점에서 도시의 컨텍스트의 문제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다. 자하 하디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간과 사물', '촉매로서의 미술관', '벽과 비벽(非壁)-현대적 공간의 존재형태', '드라마로서의 사상/예술을 위한 무대' 등의 건축적 화두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장 누벨(Jean Nouvel)의 브레겐츠(Bregenz) 오피스와 집합주택 이 건물은 오피스와 주거가 복합된 건물이다. 좁고 긴 형태의 평면을 지니는 이 건물은 3개층으로 이루어진 저층부와 저층부의 남단에 위치하는 6층 높이의 고층부로 구성되며, 저층부의 중앙에 장방형의 중정을 지니고 있다. 저층부는 오피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층부는 주거로 이용되고 있다. 중정은 오피스, 회의실, 통로, 카페테리아, 주거를 한데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벤 반 버클(Ben van Berkel)과 보스(Bos)의 발크호프(Valkhof)미술관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설비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구조체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한데 수용할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벤 반 버클은 말하고 있다. 그가 주목한 두 가지 중요한 구조체는 계단과 천장인데, 상당히 넓은 이 계단은 사람들의 동선을 각 시설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천정은 필요한 인프라시설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구조체라 할 수 있다. 그는 우주시대에 걸맞는 가볍고 떠있는 구조체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티븐 홀(Steven Holl)의 넬슨-아트킨스(Nelson-Atkins)미술관 확장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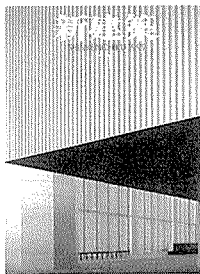
스티븐 홀은 1933년 건립된 기존의

고전적 미술관에 상보적인 미술관을 증축하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선택하였다. 기존의 미술관과 새로이 계획된 미술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보적인 대립항이 성립한다. 기존 부분/신축부분: 불투명/투명, 무거움/가벼움, 밀폐/내외부의 교차, 내향적인 조망/랜드스케이프에 따르는 조망, 경계의 명확함/경계의 모호함, 확정되어진 순환동선/오픈된 순환동선, 단일체/복수의 투명한 렌즈와 같은 대립항들을 통해 예술과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건축을 한데 엮은 작업을 이루어 내고 있다.

신건축

1999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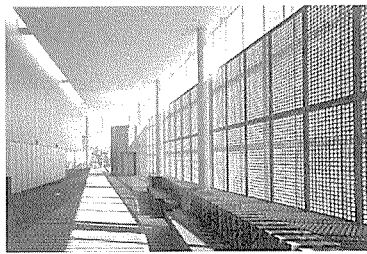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마키의 토야마 국제회의장, 후쿠무라 순지(福村 俊治)와 공간계획



VOYAGER의 오키나와 SPIRIT OF JESUS CHURCH, 이시이 카쓰히로(石井和紘)의 히사마쓰 파오(PAO), 시미즈(清水)의 쿠리타(栗田)공업사업개발센터 등이 소개되었으며, '토야마현 마을얼굴만들기'라는 테마로 4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 작품

▶마키(槇)의 토야마 국제회의장
본래의 계획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의장과 그에 필



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만을 갖춘 건물이 완성되었다.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의 중앙에는 회의장 홀이 위치하며, 그 둘레로 포이어와 지원시설이 배열되고 있다. 포이어부분의 외벽은 유리로 처리되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투영되게 하였고, 포이어와 유리벽 사이에 격자모양의 목재 그물망을 설치하여 시선을 어느정도 차단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토록 하였다.

▶후쿠무라 순지와 공간계획 VOYAGER의 오키나와 SPIRIT OF JESUS CHURCH



떠있는 배를 연상시키는 백색의 건물이다. 예배당과 예배당 동측의 목사를 위한 주택 사이에 예배당의 길이보다 더 긴 파티오(중정)를 배치시키고 있다. 예배당과 주택은 필로티로 연결되어 그 사이공간을 파티오로 만들고 있으며, 이 커다란 파티오는 천장의 개구부마다 유리로 막아내어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티오의 북측으로는 정원이 연결되어 예배당-파티오-정원 순으로 공간이 순차적으로 개방되면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시이 카쓰히로(石井和紘)의 히사마쓰 파오(PAO)

원형의 평면, 캔버스로 된 지붕. 몽고의 주거유형인 파오를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히로시마의 숲속에 위치한 별장이다. 벽면은 유리로 구성되어 목재의 촘촘한 루버가 첨가되어 시선을 차단해 주고 있다. 내부 공간의 구성은 중앙에 작은 중정을 두고 실들이 구 주변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확장실조차 유리벽으로 처리되어 오픈된 공간구성을 갖고 있어 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있다.

▶시미즈(清水)의 쿠리타(栗田)공업사업개발센터

긴 녹지축을 중심으로 동측에는 개발프로젝트동, 초순수(超純水)동 등 세 개의 건물군이 나열되고 서쪽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동과 식당동이 그 사이에 긴 연못을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긴 녹지축과 연못은 서로 다른, 그리고 자칫 단조롭고 건조해 보이기 쉬운 연구시설들을 하나로 묶으며 활력을 더하고 있으며, 연못의 가장사리를 가로지르며 커뮤니케이션 동과 식당동을 연결하는 다리는 연구단지의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지우는 개방적인 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토야마현 마을얼굴만들기

'토야마현 마을얼굴만들기'라는 테마로 지난 수년간 이 현에 만들어진 소규모의 공공시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크고 작은 다리과 등산로, 등산로의 입구 등으로서 소박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풍요로움을 주며 마을의 얼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다.